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CMYK

전주매일

2017년 2월 1일 수요일 (음 1월 5일) 제17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쌀 소비량 줄면 쌀 가격도 떨어진다'

농민들 '이중고'

▶ 통계청 양곡소비량 조사결과

1인당 쌀 소비량 61.9kg 전년대비 1.6% 감소 쌀 소비촉진 대책 절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30년 전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 농가의 양곡 창고마다 쌀 재고가 넘쳐나 가격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쌀 수급 안정과 재고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도 각종 소비촉진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줄어드는 쌀 소비를 막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쌀 소비촉진 대책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 새로운 쌀 소비촉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부문 1인당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30년 전인 1986년 소비량 127.7kg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1인당 하루 쌀 소비량도 169.6g으로 2.8g 줄어들었다. 하루에 밥 두 공기(100g)도 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60kg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

빵, 인스턴트 식품 등 대체식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쌀 소비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양곡 전체 소비량도 142kg에서 71.2kg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농가와 비농가 양곡 소비량에서는 농가가 115.7kg, 비농가가 68.5kg으로 두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보리쌀, 밀가루, 잡곡류 및 주류와 서류 등을 포함한 기타 양곡 소비량은 9.3kg으로 전년대비 5.7% 늘었다.

이 같은 기타양곡 소비량 증가세는 2012년 이후 4년 연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식용으로 소비된 양곡량은 전체 소비량의 97.6%로 비중에서는 1998년 95.1%보다 높아졌다.

반면 장류와 떡, 과자류 등의 기타 음식용 소비 비중은 2.4%로 1998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16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서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4%로 전년대비 0.4%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9.3%로 0.3%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농가교육지수는 103.7로 전년대비 0.7% 하락했다.

농가판매가격지수에서는 축산물과 청과물은 전년에 비해 각각 5.8%·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곡물은 9.4%나 떨어졌고,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는 농업용품이 1.6% 하락했지만 농촌임금과 가계용품이 각각 4.2%·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용 기자

설 연휴 이후 내려간 계란값 설 연휴 이후 계란 가격이 내린 지난달 31일 오후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보고 있다.

3면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
4면 - 특검팀,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

4월 말 혹은 5월 초

벚꽃대선 현실화 가능성

헌재 늦어도 3월 초 박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의지 따라 대선후보자들 출마선언·캠프 구성 '대권 레이스' 불 붙어

현재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지지율 1위로 선두 유지 '제3지대 빅텐트' 둘러싼 김종인의 향후 행보 변수로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의지를 밝히면서 '벚꽃대선'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5일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탄핵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처럼 벚꽃 대선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선후보들이 출마선언을 하거나 캠프 구성에 나서는 등 대권 레이스에도 불이 붙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여유로운 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지지율 1위로 대세론 기류 속에서 선거 시기까지 앞당겨진다면 후위주자들의 추격전은 시간적으로 빠듯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현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개헌이다.

당장 문 전 대표의 뒤를 쫓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반격 카드가 개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반 전 총장은 비(非)패권 정치를 실현할 방법으로 개헌을 꼽으며 임기 3년 단축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개헌은 이른바 빅텐트 연대를 실현할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개헌 카드는 범여권뿐 아니라 범야권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만큼 합종연횡이 뒤따를 수 있다.

개헌을 매개로 이른바 '제3지대의 빅텐트'를 둘러싸고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향후 행보도 변수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3지대론 자체가 소멸되거나 '스몰텐트'에 그칠 수도 있고, 문 전 대표에 맞설 수 있는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문 전 대표는 당을 장악하고 있어 경선을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당내 지지율 2~3위를 달리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결선투표를 통해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비문(非문재인)계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감동 없는 경선'이다.

이들은 "문 전 대표의 무난한 경선 승리가 무난한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결선에서는 문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자에게 힘을 실어줄 가변성도 있다.

여권의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이다. 황 권한대행은 출마 질문에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안재용 기자

**무주군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 11일 개최

'2017 금석배 전국 학생(초·고) 축구대회'가 11일부터 13일간 전북 군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북축구협회에 따르면 금석배축구대회가 다음 달 11일부터 23일까지 군산월명종합경기장 등 군산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총 113개 팀(초등부 72팀·고등부 41팀)이 출전해 예선 풀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군산월명종합경기장과 수송공원·군산대 등 9개 구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또 지난해 신설된 초등부 페스티벌도 열린다.

대회가 13일간 치러지면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군산=문정곤 기자